

럿셀氏의 財産論과 感想(제7회)

高永煥

사람은 遺産相續의 刺戟이 업슬 것 가트면 勤勉하게 勞動하지 안는다는 言論은 吾人의 往々 接耳하는 바이다. 果然 産業界의 霸王들은 家門을 建設하라는 慾望에 刺戟되엇스며, 萬一 그들이 將來에 이 慾望을 滿足할 만한 希望이 絶無할 것 가트면 無限히 辛苦하는 事業에 그의 生涯를 犧牲치 아니하리라는 것을 吾人의게 明言한 者가 有하다. 그러나 余는 참으로 有益한 事業이 如斯한 動機로 因하여 成就되얏다고는 深信치 안는다. 普通의 事業은 生活하기 爲하여 經營되는 것이나, 그러나 참으로 價値잇는 事業은 事業 그 自體에 對한 趣味로 因하여 成就되는 것이다. 家門의 建設을 目的한다고 自己도 信각하며, 또 他人도 그릇케 信각하는 産業界의 霸王들도 보담 더 만흔 힘에 對한 愛 또는 大事業에 對한 冒險的 快樂으로 因하여 刺戟이 된다. 萬若 그 成就한 事業의 量이 多少라도 減少되는 境遇가 잇다 하면, 그는 必然코 壓迫과 無氣力과 腐敗를 伴하는 懶怠의 富를 避하는데 相當한 價値가 잇슬 것이다.

現今 實行하는 富의 分配制度는 決코 엇더한 主義 우에 建設된 것이 아니다. 昔時 征服에 依하여 課擔된 制度에 그 根源을 發한 것이니, 卽 征服者가 自己의 利益을 爲하여 任意로 裁定한 制度가 今日에 固定하여 法律로 된 것이오, 그 後에 根本적으로 改造된 일이 업는 것이라. 그러면 改造는 如何한 主義 下에서 實行하여야 될 것인가?

社會改造의 가장 廣汎하고 가장 代表的의 計劃으로 認定되는 社會主義는 專혀 正義를 目標로 삼고 前進한다. 卽 現在의 富의 不平等은 正義의 違反이 되는 故로 社會主義者들은 몬저 이 不平等을 除去하라고 한다. 社會主義의 根本目的은 各 個人으로 하여금 平等한 收入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境遇에 現在의 모든 不平等을 要求의 多少와 努力의 差異에 依하여 公正하게 하여야 하겟다는 것이 그의 眞髓다. 現在의 制度가 大概 不公平하다는 것과 및 現在의 制度 下에 存在하는 殆히 全部의 不公平이 有害하다는 것은 다시 討論할 餘地가 업다. 그러나 余는 다만 正義 하나가 經濟的 改造

의 基礎로 될 만한 唯一한 原理라고는 思考치 않는다. 正義라는 것은 各 個人이 平等히 幸福스러운 境遇에 維支될 수 있는 것과 갓치 各 個人이 平等히 不幸스러운 害에도 維支될 수 있는 것이다. 元來 正義라는 것은 그가 한번 實現만 되면 그 自體가 新生命의 源泉을 包裝하는 것이 아니다. 맑스派의 舊式 社會 革命主義者들은 泰平世界가 建設된 後의 社會生活에 對하야는 決코 夢想이라도 하야 본 일이 업다. 그들은 自己네의 理想이 한번 實現만 되면 小說 中에 나타나는 君主나 王妃와 가치 永久히 幸福스러운 生活을 할 줄로 空想하였다. 그러나 그는 人性的 自然上 不可能한 것이다. 慾望, 活動, 目的 等은 吾人의 平常生活의 眞髓인데 所謂 泰平世界—黃金時代—가 想像上으로는 비록 愉快하다 할지라도, 萬一 그것이 實際에 實現되다 하면 堪耐키 어려운 苦海가 될 것이다.

最近의 社會主義者들은 그 主義 創設者들의 特色이엇든 宗教的 情熱을 喪失함과 同時에 社會主義를 一定한 目標로 보지 안코 도리혀 一種의 傾向으로 認知하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즉도 人間에 對하야 政治的으로 가장 重要한 意義가 있는 것은 그 收入이라는 見解와 및 民主的 政治家의 第一 目的은 勞動賃金을 增加시키는 것이라는 見解를 維支하고 있다. 그러나 余는 이 見解는 人間의 幸福에 對한 너무나 受動的 觀念이라고 思考한다. 產業界에 在하야 多數의 人民이 幸福스러운 生活을 營爲하기에 너무나 貧寒한 것은 事實이나, 그 貧乏만 排除하면 곳 幸福스러운 生活을 할 수 있스리라 하는 것은 決코 眞正한 事實이 아니다. 現在에 有福하다는 階級으로서 그 實善良하고 幸福스러운 生活을 營爲하는 者가 極히 少數이니, 그런즉 社會主義者들은 赤貧한 結果로 發生하는 害毒을 代身함에 오즉 今日의 大富豪들이 困苦에 陷하는 그 害毒으로써 함에 不過할 것이다.